



2017년 1인 1자율학습모임 지원 사업 운영사례집



2017년 1인1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운영사례집

Contents

1. 2017년 1인 1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 2017년 1인 1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개요 -----	1
[강동구] -----	3
[관악구] -----	11
[금천구] -----	19
[용산구] -----	27
[은평구] -----	35

2. 2017년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 수기공모전 개요 -----	44
- 수기공모전 작품소개	
[대상] 학습동아리를 통한 봉사여정과 성장기적 -----	45
[최우수상] 어제 슬펐다고 내일도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	49
[최우수상] 구연동화 학습 동아리 활동수기 -----	52
[우수상] 문화사절단을 꿈꾸며 -----	56
[우수상] 마음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 준 나의 학습동아리 -----	59
[우수상] 한 계단만 올라서면... -----	63
[장려상] 비상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 -----	66
[장려상]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야기 엄마의 소망 -----	69
[장려상] 평생학습의 즐거움 -----	72
[장려상] 나이를 잊은 그대에게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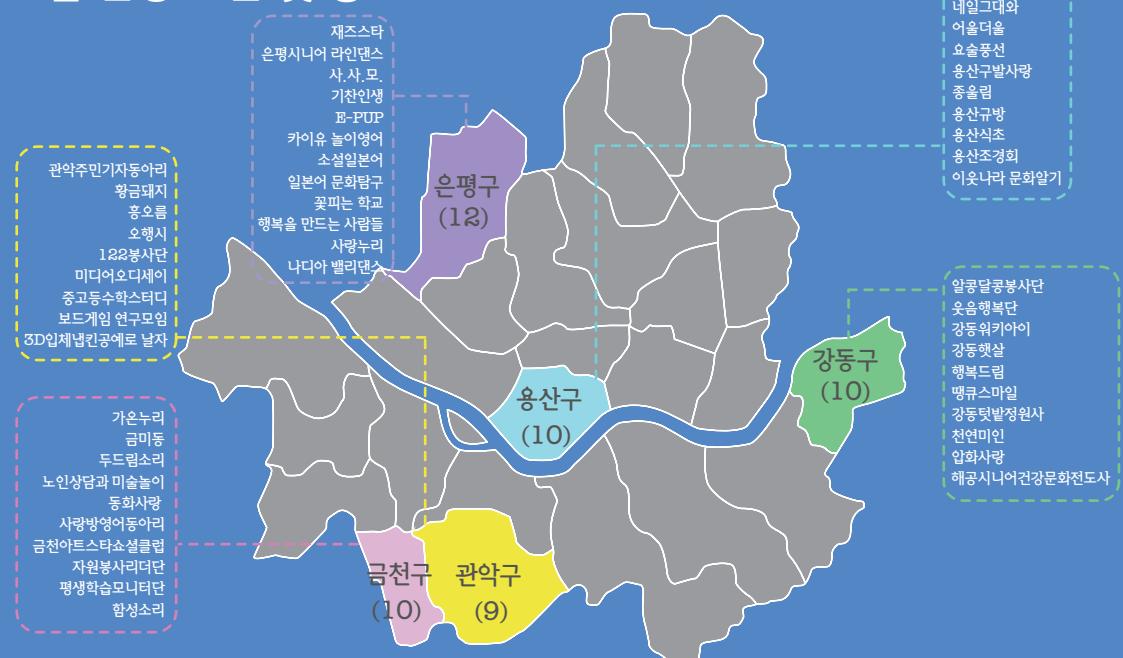
2017년 1인1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
- 사업명: 2017 학습+실천 연계형 자율학습소모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학습 + 실천형 모임 발굴·지원을 통해 학습·자원봉사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사업 선정 기관 및 동아리



사업 결과

총 51개 자율학습모임 지원, 참여자 6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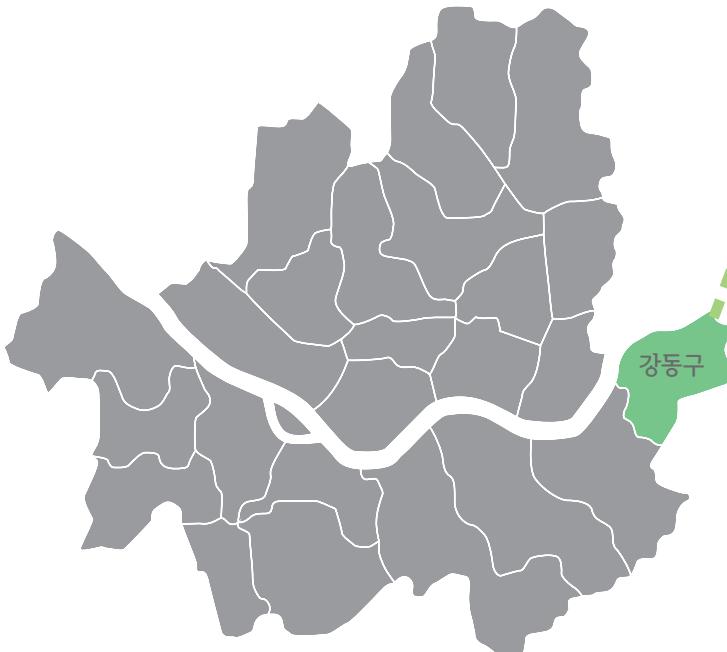
심화학습 526시간, 자원봉사활동 389회, 2,314 명 참여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는 누적 인원임

강동구



강동구



자원봉사형

- 01 알콩달콩봉사단
- 02 웃음행복단
- 03 강동워키아이
- 04 강동햇살
- 05 행복드림
- 06 땡큐스마일

시민기획단

- 07 강동텃밭정원사
- 08 천연미인
- 09 압화사랑
- 10 해공시니어건강문화전도사

사업결과

- 참여 인원



128명 참여

- 동아리 심화학습 활동



24회,
24시간

- 자원봉사활동



78회,
551명 참여

- 지역기관 네트워크



9개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내역



-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봉사단 리더 대상 봉사활동 컨설팅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모임별 성과 공유, 재능나눔 기부 특강 (9.28)

자원봉사 활동내역



알콩달콩봉사단



웃음행복단

요양원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강동워키아이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걷기 지도



강동햇살

마을요양원
어르신
이미용 봉사



행복드림

어르신
실버 건강체조
재능나눔



땡큐스마일

경로당 대상
웃음치료 봉사

사업성과 관리



동아리 면대면
상담을 통해
학습욕구 파악,
심화학습 공간
마련



자원봉사
수요처 적극
연계 및
봉사활동
실적 인정



1. 알콩달콩봉사단



모임
소개



- 고덕평생학습관에서 오카리나·우크렐레 수업과정 수료생들이 모여서 결성된 동아리
- '배워서 나누는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가치실현'을 동아리 목표로 삼음
- 지역주민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
활동



- 지역주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봉사활동과 찾아가는 양상별 공연 등 재능기부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3명

2. 웃음행복단



모임
소개



- 강동평생학습관 웃음치료사 2급과정 수료생들이 모여 동아리 결성
- 보다 전문적으로 '웃음치료'를 배우고 배운 웃음치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함

주요
활동



- 문화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연봉사활동 실시
- 레크리에이션, 신체활동 지원 등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3명

3. 강동워키아이



모임
소개



- 강동평생학습관 걷기지도사 1급수료생들이 모여서 동아리 결성
- '건강한 걷기'를 통한 동아리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동아리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



- 동아리 심화학습 등으로 올바른 걷기 등 전문적인 걷기 관련 수업 수강
- 올바른 걷는법, 걷기 위한 스트레칭 등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걷기지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5명

4. 강동햇살



모임
소개



- 강동평생학습관 생활미용 과정 수료생으로 학습동아리 결성
- 생활 속 이미용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지역사회 이미용 봉사활동 실시

주요
활동



- 생활속 이미용 방법(컷 등)교육 수료생으로 구성되어
많은 이미용 봉사활동 실시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0명



5. 행복드림



**모임
소개**



- 고덕평생학습관 2017년 실버건강체육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모여서 학습동아리 결성
- 배워서 나누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웃음치료를 활용한 봉사활동 희망

**주요
활동**



- 건강댄스 보수교육(실버체조) 심화교육 진행
- 경로당 및 요양원 대상 어르신 실버건강체조 재능나눔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0명

6. 땡큐스마일



**모임
소개**



- 강동평생학습관 웃음치료사2급 과정 수료생들이 결성
- 배워서 나누는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가치 실현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동아리 운영 중

**주요
활동**



- 웃음치료기법 보수교육 운영
- 경로당 대상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봉사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6명

7. 강동텃밭정원사



모임
소개



- 강동 실내외 텃밭정원사 양성교육(2015)을 수료한 1기생들이
“지속적인 스터디와 공동작업을 통한 봉사”를 목적으로 결성
- 주변과 함께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관리하고자 함

주요
활동



- 정기모임을 통해서 정원가꾸기(정원디자인 설계) 학습
- 식물을 통한 힐링 공간, 지역사회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4명

8. 천연미인



모임
소개



- 천연재료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비누, 샴푸, 석고 방향제, 향초 등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학습동아리
- 환경에 대한 강의 진행 및 스스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제품 제작·사용

주요
활동



- 환경보호에 대한 학습을 통한 생활 속 친환경적 실천 활동
-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친환경 제품 제작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20명



9. 압화사랑



**모임
소개**



- 자연친화적이며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압화를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

**주요
활동**



- 압화가 치매예방, 심신안정 등의 원예치료의 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압화의 다양한 창작기법 연구

유형



시민기획단



5명

10. 해공시니어건강문화전도사



**모임
소개**



- 해공노인복지관에서 교육 이수 후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구성한 웃음치료 동아리
- 강동구 내 복지시설 재능기부 활동 및 공동체 의식 향상에 목적을 둠

**주요
활동**



- 웃음건강체조 보수교육 진행
- 지역의 다양한 웃음치료 봉사단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활동 노력

유형



시민기획단



7명

관악구



관악구

자원봉사형

01 관악주민기자동아리

02 황금돼지

03 흥오름

04 오행시

05 122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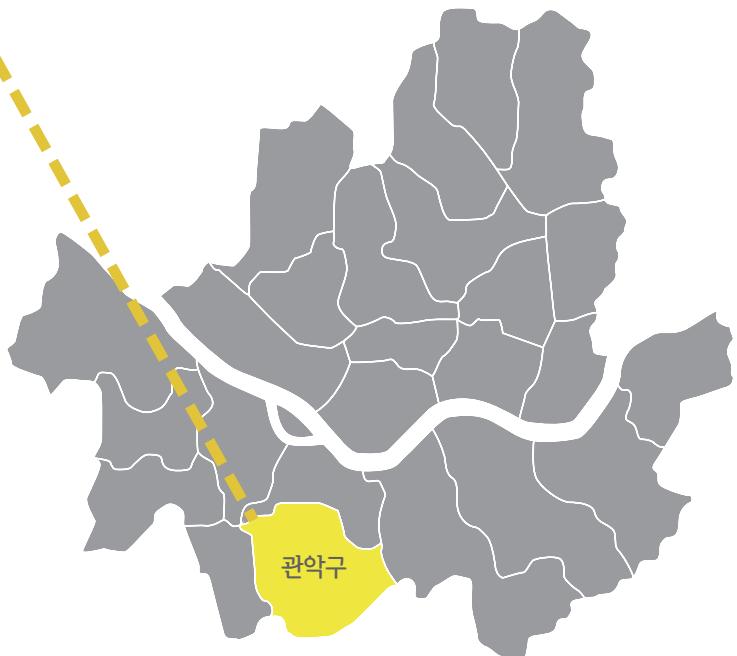
시민기획단

06 미디어오디세이

07 중고등수학스터디

08 보드게임 연구모임

09 3D입체냅킨공예로 날자



사업결과

- 참여 인원



100명 참여

- 동아리 심화학습 활동



65회,
100시간

- 자원봉사활동



30회,
422명 참여

- 지역기관 네트워크



2개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내역



- 자원봉사 인큐베이팅 교육, 사업제안서 작성 교육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모임별 성과 공유 (10.23)

자원봉사 활동내역



관악주민기자동아리

기사발굴 및
기사제공
(인터넷방송)



황금돼지

유치원, 복지관
등 역사연극
공연



홍오름

문해학습자·
치매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오행시

어르신 대상
건강 체조,
손유희 활동
등 재능나눔



122봉사단

학교밖청소년
및 탈북청소년
학교 급식 지원

사업성과 관리

심화학습 집중지원

학습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활동 지원
평생학습관
전담

중간점검 진행

실효성 있는
학습 지원을
위한 중간 점검
실시



1. 관악주민기자동아리


**모임
소개**


- 관악구 평생학습관 마을기자학교 수강생들이 자율학습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
- 지역사회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자생적인 지역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 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자원봉사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활발하게 활동 중임

**주요
활동**


- 동아리원이 지역미디어 활동가로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격주 간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기사 발굴, 기사작성, 기사 제공 등의 봉사활동 전개

유형


자원봉사형



7명

2. 황금돼지(역사랑 놀자)


**모임
소개**


- 2013년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나 6명의 아이들과 엄마표 품앗이 수업을 시작하여 2015년 관악구 독서동아리에 등록하면서 황금돼지 모임이 체계화되어 동아리로 자리잡음
- 황금돼지는 '더불어, 함께, 천천히, 즐겁게'를 모토로 통합적인 인성교육과 이웃나눔 실천에 목표를 두고 동아리 운영

**주요
활동**


- 품앗이수업으로 독후 활동, 토론, 마을 신문만들기, 연극 공연, 주제별 체험학습, 역사수업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유형


자원봉사형



11명

3. 흥오름



모임
소개



- 우리 국악에 대한 사랑 및 배움을 통해 노년의 활기찬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이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
- 경로당, 밤골마을 등 문화의 사각지대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여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



- 민요 장단과 춤동작 등 정기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문해학습자와 치매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능나눔 실천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0명

4. 오행시(오감놀이)를 통해 행복과 건강 시작)



모임
소개



- 2016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오감놀이'라는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오감놀이에 대한 자율학습을 통해 관악구 내의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건강운동, 웃음치료, 손 유희 활동을 학습하여 봉사활동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오행시' 결성

주요
활동



- 오감놀이 및 손유희 놀이 교육 진행
- 어르신 대상 건강체조, 음악에 맞춘 손유희 활동, 어르신과 민요, 가요 노래 부르기 등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수행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5명



5. 122봉사단


**모임
소개**


- 2016년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동아리
- 관악구 내 탈선 청소년 및 탈북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법을 학습하며 관내 청소들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 설문을 통해 청소년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대화법에 대한 학습과 대화 및 음식 배식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연계

**주요
활동**


- 대화법에 관련한 전문 학습 진행
- EXIT(학교밖청소년) 및 우리들학교(탈북청소년학교) 급식지원 등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2명

6. 미디어오디세이


**모임
소개**


- 다양한 학습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자 결성된 동아리
- 관악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관악평생학습백과는 관악구 내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주요
활동**


-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평생학습의 소식을 담는 활동
-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참여 문화 유도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5명

7. 중고등수학스터디



모임 소개



- 중등지도사과정을 이수한(이수증인) 회원 중 자녀를 위한 심화학습과 고등1과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의 모임
-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아이의 시각에서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엄마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

주요 활동



- 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의 중요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 활동
-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것들과 좋은 팁들 공유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8명

8. 보드게임 연구모임



모임 소개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자녀의 놀이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성된 모임
- 단기간 보드게임을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맞는 보드게임을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달시키고자 노력

주요 활동



- 보드게임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보드게임의 룰을 익히고, 보드게임의 학습효과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5명



9. 3D 입체 냅킨 공예로 날자



모임
소개



- 냅킨 공예를 좋아하여 월 2회 이상의 만남과 작품 활동으로 소통하고 있는 관악구 삼성동, 대학동, 난곡동 주민의 모임

주요
활동



- 작품 활동을 통해 정서를 가꾸고, 자기 계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연구함
- 2016년부터 초등학교 미술 수업 연계로 재능기부 실천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5명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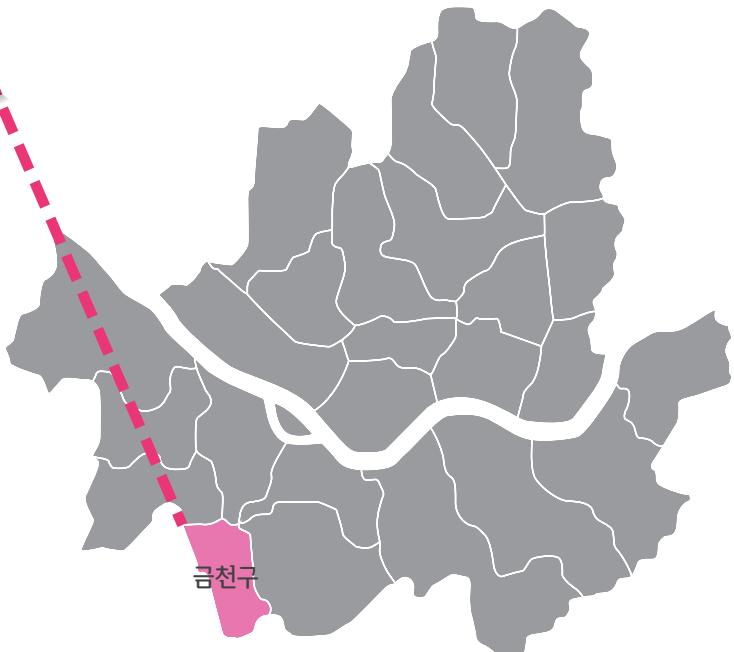
금천구

자원봉사형

- 01 가온누리
- 02 금미동
- 03 두드림소리
- 04 노인상담과 미술놀이
- 05 동화사랑
- 06 사랑방영어동아리

시민기획단

- 07 금천아트스타쇼셜클럽
- 08 자원봉사리더단
- 09 평생학습모니터단
- 10 합성소리



사업결과

- 참여 인원



110명 참여

- 동아리 심화학습 활동



79회,
156시간

- 자원봉사활동



60회,
618명 참여

- 지역기관 네트워크



45개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내역



- 동아리 문제해결 워크숍, 신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모임별 성과 공유 (10.28)

자원봉사 활동내역



가온누리

어린이집,
복지관 등
마을축제에서
인형극 공연



금미동

지역 아동 및
경로당 대상
미술 치료봉사



두드림소리

지역 행사
축하공연



노인상담과 미술놀이

관내
경로당 대상
심리상담



동화사랑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발마사지
봉사활동 진행



사랑방영어동아리

겨울왕국
영어책
읽어주기

사업성과 관리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설명회,
중간평가회,
성과공유회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리더워크숍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
로서 필요한
역량 교육 실시



1. 가온누리



모임 소개



- 금천구평생학습관의 인형극 강좌 기초과정 10주, 심화과정 8주, 고급과정 8주까지 참여하면서 인형극의 기반을 닦은 동아리원들로 구성
- 그동안 배웠던 인형극을 활용하여 좀 더 보람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찾아가는 인형극단 창단

주요 활동



- 인형극 강좌를 통해서 인형극 실무학습
- 직접 인형극 공연을 만들고 발표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0명

2. 금미동



모임 소개



- 2015년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과정 수업 이수자들이 동아리 결성
- 어린이, 청소년 정서적 지원과 인성 함양 제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갈등관계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동아리의 목적

주요 활동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여성들에게 미술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6명

3. 두드림소리



모임
소개



- 201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60세 이상의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난타 교육을 약 7개월간 실시하였음. 사업 종료 후 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난타 동아리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

주요
활동



- 어르신 생신잔치, 어르신복지센터 가족사랑, 야외음악회 축하공연 등 다수의 행사에 참여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재능나눔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1명

4. 노인상담과 미술놀이



모임
소개



- 고령화시대 고독, 질병, 상실감 등 노인이 느끼는 고통이 심각, 전문적인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주변의 꾸준한 관심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심리안정이 필요
- 이에 노인상담의 필요성과 노인의 이해를 통하여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미술놀이 프로그램 개발·실습

주요
활동



- 노인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심화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며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중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5명



5. 동화사랑



모임 소개



- 2014년 자원봉사센터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과정 수료생을 중심으로 동아리 조직
- 금천구 관내 도서관에서 매주 1회 동화구연 봉사활동
- 관내 마을축제와 연계한 동화구연 공연 및 동화사랑 동아리 홍보

주요 활동



- 심화수업을 통해 동화구연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부터 실제적인 과정을 배움으로써 전문적인 역량 강화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8명

6. 사랑방영어동아리



모임 소개



- 영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모여서 회화 위주로 공부하는 영어 동아리
- 영어회화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들어올수 있는 열린 동아리

주요 활동



- 영어발음 교정 및 독해 등 영어 심화학습
-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8명

7. 금천아트스타션클럽



모임
소개



- 금천구 마을 창작소 어울샘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술 동아리로 매주 월요일에 모여 자유 주제로 그림을 그림
- 그림 전공자는 개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로잉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주요
활동



- 자유주제 및 인체 드로잉 심화학습
-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요구 충족 교육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0명

8. 자원봉사리더단



모임
소개



- 지역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 리더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과 실천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주요
활동



- 지역 이슈 및 문제해결을 위해 매월 협의회 개최
-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원봉사영역 확장 연구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5명



9. 평생학습모니터단



모임 소개



- 금천구 평생학습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동아리
- 강의 평가 및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민중심의 평생학습을 위해 연구, 기획하여 앞으로 금천구 평생학습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주요 활동



- 평생학습 정책과 기획, 벤치마킹을 통해 평생학습 현장 모니터링
- 금천구 내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제언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5명

10. 합성소리



모임 소개



- 2012년 학부모 리더십 교육을 통해 만남
 - 2013년 학부모 교육동아리 '합성소리' 결성
- 목적 : 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학부모
 ② 서로에 재능을 나누면 함께 소통하는 학부모
 ③ 배움을 나누면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학부모

주요 활동



- 환경, 대기질 오염과 미세먼지 방지대책 심화학습
- 금천구만의 특성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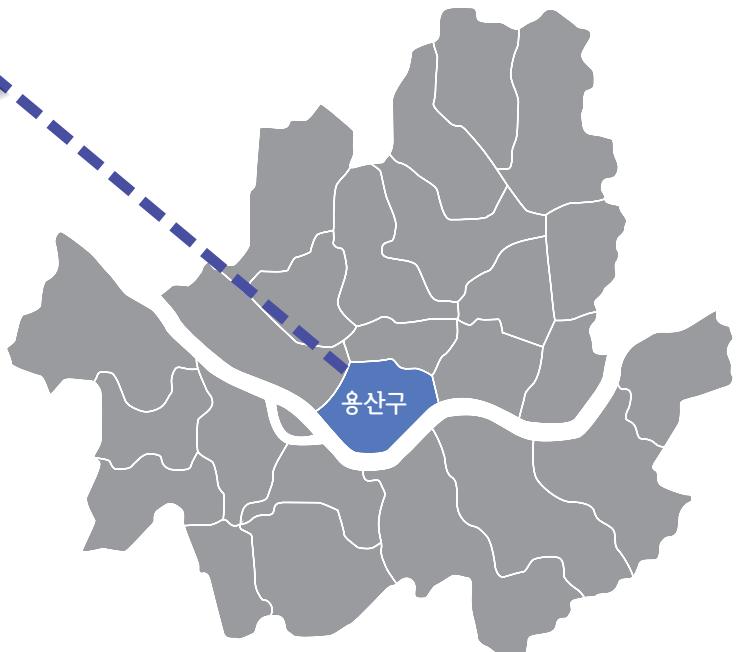
용산구



용산구

자원봉사형

- 01 글샘누리
- 02 네일그대와
- 03 어울더울
- 04 요술풍선
- 05 용산구발사랑
- 06 종울림
- 시민기획단
- 07 용산규방
- 08 용산식초
- 09 용산조경회
- 10 이웃나라문화알기



사업결과

- 참여 인원



150명 참여

- 동아리 심화학습 활동



35회,
95시간

- 자원봉사활동



123회,
220명 참여

- 지역기관 네트워크



16개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내역



- 자원봉사활동 이해 교육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모임별 성과 공유 (10.31)

자원봉사 활동내역



글샘누리

용산구 치매
지원센터
기억키움학교
한글교실



네일 그대와

관내 어르신들
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



어울더울

청소년 시민성
교육 진행



요술풍선

풍선아트 재능
나눔 진행



용산구발사랑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발마사지
봉사 활동 진행



종울림

종이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
및 장애인
정서 지원

사업성과 관리

효과적인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체계 확립

동아리 성과공유회 자료집 제작

학습동아리
간 벤치마칭
기회 제공



1. 글샘누리



**모임
소개**



- '글샘누리'는 한글이 샘솟는 세상, 한글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세상을 의미하며, 지식을 나누고 마음을 더하여 한글 세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학습동아리

**주요
활동**



-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이해와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성인 비문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문해교육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2명

2. 네일그대와



**모임
소개**



- 네일케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활용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액순환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
- 네일케어와 함께 어르신들과 촉감을 통한 공감대 형성, 정서 지원

**주요
활동**



- 네일케어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구성원의 역량강화
- 관내 어르신들 대상 무료 봉사활동 수행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0명

3. 어울더울



모임
소개



- 어울더울은 '어울려서 더불어서'의 제주방언 '어울렁 더울렁'에서 '어울'과 '더울'을 뜻함
- 청소년 대상 시민성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시기부터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을 알고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임

주요
활동



- 청소년 대상 시민성교육을 진행하는 시민성 교육 봉사단
- 월1회 정기적으로 시민성 교육 및 관련 캠페인 진행
- 지도교안 제작을 위해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8명

4. 요술풍선



모임
소개



- 풍선아트에 관심있는 용산구 관내 성인들이 모여, 풍선아트 제작법에 대해 공유하고 연습하여 역량강화 하고자 만들어진 동아리

주요
활동



- 용산구 관내 공공기관 및 행사에 풍선장식을 하고 풍선아트부스를 운영함으로써 나눔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중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5명



5. 용산구발사랑



**모임
소개**



- 2011년 용산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발마사지 전문봉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학습동아리 구성

**주요
활동**



- 관내 장애인, 노인(경로당, 데이케어센터)의 신체 혈액순환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자원봉사활동
-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심화학습 진행

유형



자원봉사형



62명

6. 종울림 (종이로 마음 울린다! 봉사단)



**모임
소개**



- ‘종이로 마음을 울리다’라는 뜻을 가진 ‘종울림 봉사단’은 골판지공예 양성교육을 통해 2013년 4월부터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전문봉사단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
- 평균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소근육 운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스스로 작품을 완성시킴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등 정서 지원 활동

**주요
활동**



-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골판지 공예 프로그램 진행
- 골판지 공예뿐 아니라 종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종이공예 역량강화를 통해 봉사활동 분야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자 함

유형



자원봉사형



21명

7. 용산규방



모임 소개



- 용산구청 평생교육 “규방공예”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결성된 학습동아리
- 다문화 환경에 노출된 용산구에서 한국문화를 알림으로 인해 다문화 구성원간의 연대 및 갈등 감소와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학습소모임을 구성, 한국 전통 규방 공예를 통해 “한국문화 알리미”로 활동하고자 함

주요 활동



- 우리 고유의 규방문화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꾸준히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학습활동 진행
-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제공하는 봉사활동 진행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1명

8. 용산식초



모임 소개



- 용산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식초발효교실” 수료생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 누구나 가정에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초를 주제로 용산구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활동



-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식재료(냉동실의 건과일, 약재, 오래된 묵은 쌀, 마트에서 판매하다 상해 판매가치가 없는 과일 등)나 정미소에서 버려지는 쌀겨 등을 활용해 식초를 만들어 가족 건강 및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활동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6명



9. 용산조경회



모임 소개



- 자연과 숲을 사랑하며 지역사회 봉사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 용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경관리사 자격과정” 수료자들로 학습동아리 구성

주요 활동



- 지역사회 생태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 방법 모색
- 학습동아리원을 시민기획단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유형



시민기획단



20명

10. 이웃나라문화알기



모임 소개



- 이촌동에 많이 거주하는 일본인 이웃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문화 생활환경을 안내하고 한국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 활동



-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구성원(일본인)의 사회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토박이인 학습동아리원의 생활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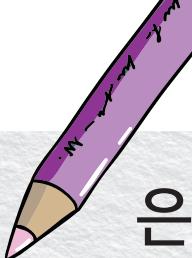
시민기획단



7명

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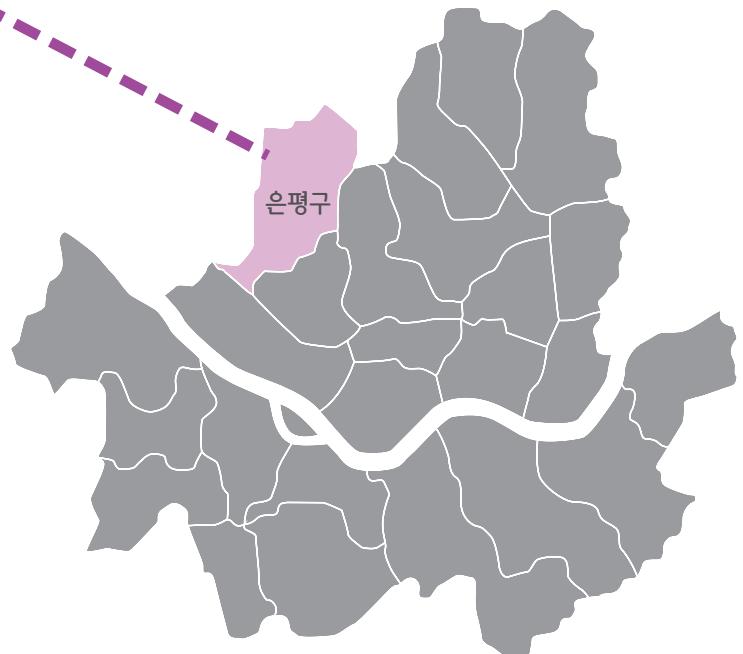
은평구

자원봉사형

- 01 재즈스타
- 02 은평시니어 라인댄스
- 03 사사모
- 04 기찬인생
- 05 E-PUP
- 06 카이유 놀이영어
- 07 소설일본어
- 08 일본 문화탐구

시민기획단

- 09 꽃피는 학교
- 10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11 사랑누리
- 12 나디아 밸리댄스



사업결과

- 참여 인원



116명 참여

- 동아리 심화학습 활동



78회,
151시간

- 자원봉사활동



98회,
503명 참여

- 지역기관 네트워크



6개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내역



- 교육 : 자원봉사 마인드 및 역량강화 교육, 사업제안서 작성 교육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모임별 성과 공유 (9.13)

자원봉사 활동내역



재즈스타

자원봉사 박람회
공연 및 어르신
공연 봉사



온평시니어 라인댄스

문화교육 학습자
대상 기초라인
댄스 재능나눔



사사모

나만의 수제도장
만들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기찬인생

지역 행사 공연
참여 등 재능
나눔 공연



E-PUP

학습동아리 활동
홍보물을 제작
하여 재능 나눔



카이유 놀이영어

카이유 놀이영어
컨설턴트 및
교육활동 보조



소설 일본어

홍보자료 일본어
번역 활동



일본 문화탐구

어린이 일본문화
체험특강 후우링
만들기

사업성과 관리

학습동아리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확장

학습동아리
활동지속을
위한 숨은 고수
사업 연계

사업기획서
작성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실현

은평시민대학
시민제안
프로젝트 다빈치
실험실 연계 및
참여로 동아리
활동 지속



1. 재즈스타



모임 소개



- 재즈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습동아리로 재즈댄스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 지역 행사홍보 공연 및 소외계층 대상 재능기부 공연으로 건전한 자기발전과 긍정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주요 활동



- 회원의 재즈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학습
- 지역 행사 공연 등 재능 나눔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5명

2. 은평시니어라인댄스



모임 소개



-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갖추기 위하여 모임 결성
- 학습동아리 활동 7년차 봉사활동과 재능 나눔을 기본으로, 대회 및 축제 참가
- 은평구평생학습관 동아리로서 시니어들의 전문적으로 역량을 향상을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



- 심화학습으로 라인 댄스의 작품 연습을 통해 전문성 향상 노력
-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꾸준한 재능나눔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5명

3. 사사모



모임 소개



- 한국화의 다양한 분야 중 사의적인 정신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된 수목화와 문인화 및 채색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화의 정신적, 형식적 특성을 체득하고자 함
- 우리의 전통양식과 미풍양식을 이해하고 문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미적 문화를 고양시키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동아리 목적이 있음

주요 활동



- 주 1회 모임을 통해 각자의 역량에 맞춰 사군자를 기초로 꽃, 곤충, 인물, 동물, 산수화 등 다양하게 연습하고 서로 배우는 활동을 함
- 사군자 부채 만들기, 나만의 수제도장 만들기 등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3명

4. 기찬인생



모임 소개



- 국학기공을 통하여 신체의 노화현상을 늦추고 기혈순환이 잘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체력도 향상되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모임
- 개인의 건강, 행복, 평화를 통해 지구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활동



- 동아리 수업을 통해서 전통 건강 비법 등의 다양한 기관련 운동을 배움
- 건강 기체조를 배우면서 활기차게 건강한 에너지를 양로원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나눔 실천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21명

5. E-PUP

모임
소개

- 2016년 고용노동부와 은평구청,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한 전자출판 수업을 수료한 수강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주요
활동

- 지속적으로 전자출판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관련 수업 수강
- 지역사회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 학습동아리 활동 홍보지 제작에 재능나눔으로 참여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7명

6. 까이유 놀이영어

모임
소개

- 사교육 없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만든 동아리 모임
- 만화 영화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놓치지 않고 쉽게 배우는 영어 모임으로 끈기만 있으면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모임 진행 중

주요
활동

- 카이유 놀이영어 컨설턴트 및 교육 활동 보조 등 재능나눔 활동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2명

7. 소설 일본어



모임
소개



- 일본어 고수 김월전 선생님 반에서 중급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학습동아리 구성
- 일본어 문화와 일본어 스킬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스터디 활동을 시작한 동아리

주요
활동



- 매주 빠짐없이 스터디에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일본어 초급반 혹은 처음 등록하신 분 중에 초급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참여
- 처음보다 실력이 월등히 늘어서 일본 원서 번역 스터디 진행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9명

8. 일본어 문화탐구



모임
소개



- 이웃 일본을 배우고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 다양한 학습 및 활동을 통해서 일본과 일본어를 공부하고 재능나눔 실천

주요
활동



- 일본어 언어 학습 및 역사에 대한 학습
- 일본 대중 문화와 언어습득 문화 탐방

유형



자원봉사형

회원수



17명



9. 꽃피는 학교



모임 소개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따른 심리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돋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해서 전인적인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



- 나만의 그램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성인이 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성찰 활동 진행
- 청소년들의 진로를 코칭하는 활동 운영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0명

10.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 소개



- 심리 상담사가 모여 만든 학습동아리로 심리학, 인문학 관련 주제로 학습모임을 진행하는 동아리
- 여러 사회문제들 (부모와의 문제, 자녀문제, 가족 문제 등) 을 해결해 갈수 있도록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



- 주로 자녀문제, 가족문제, 부부 문제 등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활동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재능나눔 활동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0명

11. 사랑누리



모임 소개



-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좋은 책을 알리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동아리
- 은평구평생학습관에 모여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함

주요 활동



- 독서에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화학습 진행
- 찾아가는 책 전시활동 등의 독서 관련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함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0명

12. 나디아 밸리댄스



모임 소개



- 체육센터에서 취미반으로 시작하여 보다 심화된 작품연구와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 꾸준한 작품 연구를 통해 밸리댄스를 제대로 알고 한국적인 아름다움도 조합하여 대중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활동



- 재능 나눔 공연과 전문 무대 공연을 병행하면서 작품 활동의 범위 확장
- 밸리댄스의 여러 장르와 현대무용 및 전통무용의 기본을 틈틈이 익혀서 성인들에게는 재미와 실력 향상을, 학생들에게는 예술전공으로의 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진로의 길을 넓혀주는 활동을 함

유형



시민기획단

회원수

11명

2017년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변화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의 학습동아리로 인해 동네와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면 그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접수기간

**2017 11.01부터
11.21까지**

공모주제

평생학습의 즐거움! 나와 너, 우리의 삶을 바꾸다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나와 우리,
그리고 변화된 우리사회의 이야기

응모자격 서울지역에서 학습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 학습동아리: 학습을 목적으로 5명 이상 인원이 정기적으로 만나 활동하는 모임

공모일정

결과발표 **2017. 11. 30**

기관 홈페이지 및 당선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일 **2017. 12. 7**(2017년 서울시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 공모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모 요령 및 제출 방법

형식 수기(자유신문) 형태로 형식 제한 없음

분량 및 규격 A4용지 3매 내외(한글, 줄간격 160%, 14point)

제출서류 응모지원서(기관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http://smile.seoul.kr>) 1부
작성한 수기 1부
※ 사진 첨부개인 단독 사진 1장을 포함하여 학습동아리 활동 사진 5매 내외 반드시 첨부)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 파일 제목을 "수기공모전 제출(이름)"으로 저장하여
수기공모전 담당자 메일(ejth0308@smile.seoul.kr)로 제출

우편 접수 : 우)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SNU장학빌딩 14층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제출

문의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담당자 **02-719-6428**

시상내역

- ① 대상 50만원
- ③ 우수상 20만원

- ② 최우수상 30만원
- ④ 장려상 10만원



2017년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1. 2017년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개요

- 공모 주제 : 「평생학습의 즐거움! 나와 너, 우리의 삶을 바꾸다」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나와 우리,
그리고 변화된 우리사회의 이야기
- 선정 규모 : 대상 -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3명, 장려상-4명

2. 수기공모전 선정 현황 : 총 10작품

대상 조금옥 웃음행복단 학습동아리를 통한 봉사여정과 성장기적	최우수상 서원영 세대공감 여제 슬펐다고 내일도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최우수상 최순규 이야기나라 그리고 독서토론 구연동화 학습 동아리 활동수기
----------------------------------------------------------	-----------------------------------------------------------------	--------------------------------------------------------------------

우수상 박성희 얼쑤! 용산 한 계단만 올라서면...	우수상 맹수미 용산규방 문화사절단을 꿈꾸며	우수상 조미란 영어소설 북클럽 마음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 준 나의 학습동아리
--------------------------------------------------	---------------------------------------------	----------------------------------------------------------------------

장려상 송영미 종이비행기 비상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	장려상 이상화 청춘파워댄스 나이를 잊은 그대에게	장려상 강정옥 이웃나라문화알기 평생학습의 즐거움	장려상 최인녀 서리풀 동화나라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야기 엄마의 소망
-----------------------------------------------------	------------------------------------------------	------------------------------------------------	----------------------------------------------------------------

학습동아리를 통한 봉사 여정과 성장 기적

조금옥  웃음행복단

응모작 요약

누구나 관심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시작한 웃음교육,

사람이 좋고 만남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과 웃음행복 봉사, 학습을 통한 배움, 나눔,

성장을 통한 변화, 너무나 특별한 감사의 기적들, 봉사하면서 감동받은 여정을 나누고자 한다.

관심과 배우고 싶은 마음만으로 시작한 웃음 교육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강동평생학습관이다. 2015년 6월, 지인을 통해 웃음치료사 2급 교육을 수료한 후 학습동아리

기수끼리 한 달에 한 번씩 강동평생학습관 동아리방에서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그룹이라

가족적인 분위기, 팀원도 좋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반복연습을 통해 연습하는 그 날 만큼은

잡념하나도 없이 실컷 박장대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동아리 회원

중에 음식의 달인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오면 나누어 먹는 맛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사람이 좋고 만남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과 웃음행복 봉사

사람이 좋고, 만남이 좋은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웃음행복단 7기”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마음이

모여 모임이 무르익고부터 회원들끼리 의기투합해 10월쯤 강동구 큰나무 요양원에서 첫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봉사인 만큼 호기심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김장감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각자 맡은 역할을 즐기면서 공연을 잘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웃음치료 교육 때 배운 전체

멋진 율동, 건강박수, 풍선놀이, 우쿨렐레와 오카리나연주, 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유통하고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다 보니 열린음악회 보다 훨씬 멋진 무대, 최고의

감동을 주는 공연이 되었다. 처음에 어르신들을 뵈 순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할 때 어르신들과 함께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과 “어르신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울하고 힘든 표정, 또는 무표정의 어른신들도 계셨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점점 표정과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귀로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으니 표정으로 미소를 보내 주었고, 손을 움직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어르신들의 변화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 모든 모습 자체가 늘 감동이고 힐링이다.

학습을 통한 배움, 나눔, 성장을 통한 변화

어르신들은 모두 부모님 같고 가족 같은 분들이다. 강동평생학습관은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펼칠 장과 도전의 기회를 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한 서울특별시 최고의 평생학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학습을 통해서 표정도 바뀌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인 웃음행복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나눔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큰 기쁨과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너무나 특별한 감사의 기적들

동아리 대표인 나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사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2017년 8월, 유방암 2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현재는 3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도 다섯 번이 남아있지만 기적적으로 잘 이겨내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달에 한번 봉사는 꼭 참석한다. 웃음행복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웃음을 통해서 세포가 살아나며 에너지가 더 솟아오르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음악과 봉사,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봉사할 수 있는 기적에 감사한다. 때로는 “나 역시 아픈 몸인데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웃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봉사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르신을 위한 봉사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러한 마음이 신기하고 또 이러한 기적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씨앗인 배움의 기회를 준 강동평생학습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웃음행복단을 성장에서 성숙으로 이끌어 낸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은 2017년 학습동아리 컨설팅이었다. 강동구 10개 학습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인 그룹컨설팅으로 시작해서 학습동아리별 개별



컨설팅 순으로 이루어졌다. 컨설팅의 효과는 첫째, 2020 비전과 슬로건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마음을 다진 것이다. 둘째, 개별 회원들의 특기와 장점을 살린 역량개발이다. 강동평생학습관의 교육을 통해서 회원마다 구연동화, 우쿨렐레 연주법 등 꾸준히 새로운 과목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여 배우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함께 공연하고 연주하는 공동체를 일궈나가고 있다. 셋째, 웃음행복을 우리 동아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 타 조직과 네트워킹하여 사회공헌을 공유하고 확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식도 했고, 네이버 “웃음행복단” 등록과 SNS 홍보도 하였다. 웃음행복단을 통해 삶이 바뀌는 개인의 변화와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이로 인한 주변 사회의 변화에 감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동아리를 담당했던 컨설턴트 교수님은 기쁨과 열정 가득한 우리 동아리에 감동받으셔서 언제든 자문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도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나에게는 감사의 기적이다. 강동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고 봉사하는 웃음행복단 회원들이 현장에서 받은 감동 한마디를 정리해 보았다.

- 고전무용 이순덕선생님: 봉사란 행동보다는 진심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노래나 춤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즐거운 마음이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봉사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우쿨렐레 김지윤선생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하는 내 마음이 더 많이 즐겁고 힐링됨을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즐거움을 주는 웃음행복단이라 직장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참여하게 됩니다.
- 오카리나 김현미선생님: 50세에 들어서며 내 삶의 답답함을 풀고자 한시적으로 들었던 강의가 삶을 배우며 나눔의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봉사하고 싶어요.
- 트로트 솔리스트 김형례선생님: 어르신들께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또 오라고 하실 때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 고전무용 조금순선생님: 처음 봉사 가서 어르신 뵙 때는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저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 회계 최문정총무님: 웃음치료사 교육을 받고나서 저의 삶에 큰 변화는 밝은 미소, 큰소리로 웃기,

가만히 있기보다 먼저 도울 일이 없을까 살펴보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난 할 수 있다는 말 자주 외치기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오카리나 봉사 최재분선생님: 봉사는 나에게 기쁨 활력소입니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얻는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봉사 활동을 언제 까지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우쿨렐레, 사진, 동영상 봉사 이병예선생님: 기쁘고 보람됩니다.
- 하모니카, 천사미소, 율동, 음식의 달인 김기남선생님: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강동구
웃음행복단 사랑합니다.
- 장고, 국악, 사랑의 여왕, 건강박수 봉사 김오영선생님: 이 모든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면서 나 또한 행복한 것 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이렇듯 그 무엇
보다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웃음행복단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동아리를 찾는다.

“강동구 웃음행복단 사랑합니다!”



어제 슬펐다고 내일도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서원영  세대공감

응모작 요약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면서 강사로서 활동 중인 지금 자신의 모습이 기적이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눈으로 쫓아본다. 얼마 전만 해도 내 손을 잡고 등교하던 녀석이 이제 혼자 길을 나선다. 돌아선 내 뒤로 남은 가족의 흔적들. 바쁜 아침이 흐른 흔적을 하나둘 치우고 있자니 한 숨이 절로 난다. 요즘 부쩍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같이 늘어난 한 숨. 이럴 때 나와 친구해주는 것은 인터넷 검색창이다.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검색하던 중에 놀이 활동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편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문구와 활동비가 주어진다는 글은 생기 잃은 내 눈을 번뜩이게 했다.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수강 신청 완료. 집 근처만 알던 내가 옆 동네 공공기관을 간다는 건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두렵다는 생각보단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인터넷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찾아갔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열심히 수강했는데 수료를 하던 날, 활동비에 관한 이야기는 수강자를 모으고자 했던 낚시 성 글이었다는 말을 당당히 던지는 무책임한 기획자로 인해 허탈했다. 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보단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어서 다른 소리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간과 노력이 헛되어졌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것은 아니었다. 내겐 사람이 남았다. 놀이 수업을 받던 분들과 함께 평생 학습관에서 전통놀이 강사 양성 과정을 듣게 된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따라나섰던 그 길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강의 시간마다 즐겁게 놀이를 배웠다. 좋아하는 역사와 함께 생소한 놀이를 배우면서 내 우울함을 사라졌고, 신나서 학습관을 찾았다. 평생 학습관에서 개설되는 다른 강좌도



들으면서 심심하던 내 인생이 공부라는 즐거움으로 넘쳤다. 아침마다 가족을 사회로 보내고 내가 나갈 곳이 있다는 게 내 생활을 행복하게 했다. 전통놀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평생학습관에서 연계해준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로 나갈 기회가 생겼다. 결혼 후 나의 첫 사회생활이 된 것이다. 그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게 한다.

전통놀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전통놀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역에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기적이 일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동아리 모임에 가는 시간이 즐거웠다. 친목 도모의 동아리가 아닌 목적을 가진 학습동아리.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모임은 즐거웠다. 그 해 겨울은 동아리 방에서 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3월. 전통놀이 강사로써 사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굳게 닫힌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좌절도 즐거웠다. 그러다 6월. 재능기부강좌에 선정이 되면서 동아리 회원 분들과 강사로서 강단에 서게 되었다.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시작할 때는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만족한 미소를 보내는 수강자들의 반응 덕분에 동작구에서 은평구까지 오며 가는 긴 시간을, 행복으로 물들였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활동들. 그건 그냥 기적이었다. 겨울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봄이다. 2017년 4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6월에는 은평구 서울재능나눔학교에서 전통놀이 강의 진행,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체험부스 운영, 그리고 서울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진행된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발표에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기쁨도 나눌 수 있었다. 9월부터는 서울평생교육 봉사단에 소속되어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현재 동아리 회원의 대부분이 다양한 곳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인생의 제 2막을 달리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게 된 우리는, 모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적. 함께이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기적이다. 2016년 겨울 서먹서먹하게 모일 때만 해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학교 정문을 통과해 강의를 하러 간다. 쑥스럽기만 하던 ‘선생님’이란 호칭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 학습동아리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은 2017년 겨울. 이제 개인 활동이 늘어서 스케줄 확인을 하고 다음 일정을 잡아야 할 정도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서로 웃는다. 서로의 처음을 알기에 마주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학습동아리에 내가 속했다는 게 감사하다. 오늘은 2016년에 처음 전통놀이 강좌를 들었던 곳에서 동아리 선생님들과 강의를 진행했다. 일 년이 지나 수강자에서 강사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는가. 경력단절이라는 말 앞에 좌절하고 우울해하던 내가 돈을 쫓는 일은 아니지만, 보람이 넘치고 행복이 물드는 활동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 인생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우수상

구연동화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

최순규  이야기나라 그리고 독서토론

응모작 요약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그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꿈을 키워주는 사랑이 충만한 볼런티어들의 수고와 애씀을 이야기 했다. 또한 늙고 가진 것 없는 빈손의 어르신들에게 신나는 노래와 구수한 전래동화를 들려주어 힘과 사랑을 나눠주는 행복한 이야기이다.

자원(自願)이란 “어떤 일을 스스로 원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봉사(自願)란 첫째 남의 뜻을 받들어 섬김, 둘째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노력함, 셋째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으로서 서로 돋고 격려해 주는 활동이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활동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되는 활동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현장을 외우며 자랐다. 우리가 지녀야할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모든 인간은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공평하지 않으며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것은 고아들이 있는 보육원과 바다너머 건너온 다문화 어린이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아이들이었다. 나라는 작은 존재의 손길이 어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징검다리 건너듯 조심스럽게 한발자국씩 다가가 본다.



어느 날 우연히 구연동화를 해보고 싶었다. 어느 지인의 “당신이 들려주는 동화가 듣고 싶어요. 동화 속의 목소리 같거든요.”라는 격려 덕분이었다.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어!’ 용산구 교육포털을 클릭하니 구연동화를 무료로 지도해주겠다고 쓰여 있었다. ‘역시 용산구청이 최고야.’ 두말할 것도 없이 재빨리 신청을 하고 교육날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첫 수업은 동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할아버지 소리부터 할머니 소리, 아빠, 엄마, 심지어 아기 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 구사하기를 배웠는데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때론 잘 안 돼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소그룹을 만들어 교육생들과 서로 협력하고 팀별 발표회와 같은 힘든 과제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강의실에는 3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늙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르신들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화를 잘도 외워 오셨다. 그렇게 우린 매일 동화 발표와 노래 발표를 하였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비전을 세워나갔다. 어떤 분은 배워서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손자손녀에게 들려주겠다고 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활동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 우린 그렇게 서로가 배우는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수업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도 합격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받고 나니 모두들 고시 합격생처럼 신나고 기뻐하였다. ‘하하~ 그리고 좋으실까?’ 우리들의 쪽파티 분위기는 시종 즐겁고 기쁨이 넘쳤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구청 관련 주임님이 동아리를 만들어 보라고 격려하셨다. 그리하여 2016년 11월, 우린 동아리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도 만들고 카톡방을 만들어 나름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젠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할 즈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그래 이거다!”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어린이집에 찾아가 동화를 들려주고 선물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하여 원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답변은 대환영이었다. 백 선생님이 선물비를 협조하겠다며 선뜻 10만 원을 기부하여 원아 수만큼 수면양말을 구입했다. 예쁘게 포장해 산타할아버지 선물자루에 넣어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산타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동화도 들려주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주었다. 아이들도 어찌나 즐거워하는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따라가겠다며 우는 친구도 있었다. 사랑을 나눠 준 우리는 기쁨을 만끽하고 행복함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 동아리의 첫 행사였다.

두 번째 행사는 무료급식 어르신들을 찾아간 것이었다. 실습을 하지 못한 우리 교육생들을 어떡하나 고민할 때 생각나서 문의를 했더니 역시나 거기서도 대환영이었다. 어르신들이 백여 명쯤 모이는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레크리에이션과 동화를 들려드리는 일이었는데, 동아리 전회원이 두 명



또는 세 명씩 돌아가며 행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그곳은 12시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9시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11시정도면 대부분 오셨다. 그런데 옆 사람과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무료하게 식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식사 전에 구수한 전래동화를 들려드리니 웃음꽃이 피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옆 친구와 인사도 하게 됐다. 우리에게는 “고마워~”하고 인사도 하셨다. 아마 밥도 더욱 맛있게 드시고 소화도 잘되셨을 것이다.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청에서 청파도서관, 백합도서관, 구청도서관 등에서 동화구연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자 조력자가 아니라 센터를 맡기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우리는 우수학습동아리로 선정이 되었고 지원금을 50만 원이나 받았다. 우린 횡재를 한 듯이 신이 났고 지원금은 우리 조직이 더욱 끈끈히 뭉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왜냐하면 구연동화는 동화 속의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어야 해서 비용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캐릭터를 사서 만들거나 구연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 강사를 초빙하는 등 많은 부분에 중요하게 사용됐다. 그렇게 장만한 교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치매센터, 초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나는 서로서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 마음 읽어주기’라는 주제로 강사 활동도 했는데, “엄마의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하며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고아가 있을 거란 생각은 했어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짠한 마음에 선생님들과 동화를 들고 찾아갔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그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꿈을 키워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오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웠다. 박 선생님은 요즘 마을계획단이 조직되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서 동화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구연 동화반을 형성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동화반을 만든 박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다. 류 선생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데 어디인지 당최 말씀을 안 하신다. “쌤~ 어디서 봉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하면 부끄러워하신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봉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 이거야 원 참. 그래도 류 선생님을 격려하며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 그는 그렇게 힘을 내가며 열심인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용산구청에서 진행한 성과 발표회 자리에 모든 동아리들이 모여서 활동상황을 발표하였다. 우리 ‘이야기나라’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힘차게 박수를 쳤다. “잘했어, 정말 잘 했어! 이야기 나라 & 독서토론이 최고야! 제일 멋져~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 우린 더 많이 칭찬받고, 이 세상 그리고 용산구의 소금과 빛이 되어보자고 약속했다. “아자아자 파이팅!”

우수상

문화사절단을 꿈꾸며

맹수미  용산규방

응모작 요약

새내기 동아리로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학습동아리를 통해 내 작은 소망을 이루고 싶은 각오에 대해 다짐하는 글이다.

십오 년 넘는 세월을 외국에 나가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지 사 년 남짓,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복지가 잘 돼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다. 마음만 있으면 예전에 사느라고 바빠서 못 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수월했다. 돌아온 첫 해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봇글씨 강좌를 선택해서 재미있게 배웠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외국에 사는 딸들을 보러 자주 나가니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으면서도 친숙하고 생활에 쓸모가 있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있을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마침 용산구청에서 시행하는 매듭강좌가 있다고 해서 열른 등록을 했다. 배우는 사람들의 복인지 명장 김은영 선생님의 수제자이신 노미자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두 달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나니 비록 미숙하지만 하나 둘 작품이 나왔고 그 때마다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매듭을 배우고 나니 함께 배운 회원들이 아쉬워했는데 운 좋게도 규방공예까지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두 번의 강좌를 같이 들었던 회원들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기초만 하는 게 너무 아쉽다며 구청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동아리를 결성했다. 사실 대학시절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나는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참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동아리’라는 단어 하나에도 예전의 젊을 때로 돌아간 듯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판단력과 결단력 빠르신 이선주 회장님을 비롯하여 찬찬하게 동아리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까지, 비록 일사천리로 결성된 동아리지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지라 짧은 동아리 활동시간이지만 보람은 참으로 컸다.

일 년 남짓 된 동아리니 무슨 큰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작품을 결정하고 또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서로가 이끌어주고 도와주었다. 바느질이나 매듭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고 특히 바느질은 손과 입이 따로 놀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회원들 간의 친목도 쌓였다. 더구나 우리 동아리의 특징은 삼십 대부터 육십 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모임이라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늘 마련된 좋은 모임이다.

처음엔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찻집에서 만나 작품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남의 영업장이라 다른 손님들 눈치가 보였다. 더구나 규방공예의 특성상 천을 펼치거나 매듭 실이나 가위, 자 등 많은 용품들을 꺼내 놓고 하니 자리도 꽤나 차지하였다. 우리들만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회장님께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셔서 처음엔 주민센터의 한 곳을 빌려서 진행했고 그 후로는 용산 평생학습관에서 일주일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줘서 선생님을 모시고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동아리 특성상 봉사활동은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서 보광동 경로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쪽매듭을 하면서 이야기 동무도 해드리고 떡과 음료수도 간단히 준비해서 대접도 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손이 어설퍼 못하실 줄 알았건만 예전에 한복 단추를 만들어 다셨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주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두어 시간을 같이 했는데도 그 사이 정이 들었다. 후암 어린이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규방공예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모양의 매듭을 개발하여 가르쳐줬더니 아주 열심히 따라해 보기 좋았다. 우리 동아리도 이리저리 기획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뻤다. 내년엔 좀 더 짜임새 있는 기획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 사면 종 사고 싶다고, 매듭을 하다 보면 그 매듭을 쓸 수 있는 규방공예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자수까지 필요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전통미를 갖춘 통합적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 동아리가 전통자수까지 배우는 날을 기대한다. 지난 여름 토론토 큰 딸네 집에 갔을 때, 규방공예에서 배웠던 바늘꽃이를 여러 개 만들어 큰 딸과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어찌나 좋아들 하는지 규방공예를 배우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딸네 집에 다시 가면 우리네 전통 멋을 잘 살릴 수 있는 규방공예와 매듭 등을 전파하는 문화전도사가 되고 싶다. 외국사람들에게 모시나 인견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의 매듭보다도 더욱 더 정교하고 쓰임새가 많았던 우리나라의 매듭을 잘 배워서 작품도 만들고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문화전도사가 될 때까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우리 미르뫼(용산) 규방공예 동아리가 아주아주 오래 가서 십 년 아니 이십 년 후에도 맥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 준 나의 학습동아리

조미란  영어소설 북클럽

응모작 요약

10년도 더 된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영어소설 읽고 번역을 하면서 나의 삶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 학습동아리의 기운이 이웃에도 언 땅을 녹이는 봄비가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학습동아리,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다

“와우! 이거 정말로 내가 황금 궁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 거실 창의 커튼을 열며 한 말이었습니다. 유리창과 얇은 커튼을 거쳐서 아침 햇살 타고 스며드는 황홀한 색의 잔치. 30년 넘게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많은 키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딩 높이만큼 올라간 거대한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의 샷노란 잎들이 아파트 전체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계절 따라 색 다른 풍광을 창문 앞에 펼쳐주는 이곳에 감사하는 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일이 또 있답니다.

서초구 평생학습관, 우리들의 보금자리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며 나는 부지런하게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나의 즐거움, 학습동아리방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하도록 서초구 평생학습관에서 학습동아리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물론 서초구 내 다른 기관에서는 강의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허락해 주기도 했지만, 그 곳이 여의치 않으면 때론 카페에서, 때론 집집으로, 우리들은 책을 들고 유목민이 이동하듯 무리지어 다니기도 했어요. 카페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또 다른 곳은 두 시간씩 책을 펴고 앉아 있기에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이젠 서초구 평생학습관이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매주 한 번씩 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그간 공부한 것을 나누고 확인 하느라 모여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은 늘 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사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엮인 우리



우리 동아리는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영어소설 읽기를 합니다. 이 동아리가 구성된 것은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도저히 번역이 되지 않아서 책을 펴 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2년, 3년을 보내고 입을 열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80대 중반이 되도록 결석 한번 없이 참여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간 멤버들 중에는 손주들 양육으로, 해외 근무로 쉬는 분들도 있었지만, 돌아와서는 합류하고 또 다른 친구가 오기도하면서 지금은 여덟 명이 등록하여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40대~70대) 다양하고 사는 모습도 경력도 다릅니다. 하지만 외국어와 문학을 좋아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책을 읽으며 번역하기가 시작되면 서로 고쳐주고, 뜻을 밝혀주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이라도 하듯 발맞춰 나갑니다. 자연스런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난감 할 때면 누군가의 기지로 우리나라 속담으로, 사자성어로 풀이를 하고는 함께 웃으며 서로 칭찬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이 언제인데 그때는 그들도 참 살기 어려웠다는 둥, 이 장면은 우리들의 정서나 관습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평들도 곁들여가며 우리는 두 시간 정도의 학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현재 저희들이 읽고 있는 To Kill A Mockingbird(앵무새 죽이기)를 번역하던 중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인용했던데.” 그러자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스마트폰 메신저로 올려주는 또 다른 친구. 우리들은 이처럼 누구의 늙음도, 젊음도, 지식의 유무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고 있는 고전이나 현대물을 매개체로 한 우리들의 대화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꽃피는 봄이면 봄이라 좋고, 낙엽 날리는 거리를 흥얼거리며 혼자 걷노라면 이 가을날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들의 지혜와 겸손함이 때로는 놀라워서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비교하여 나를, 또 너를 비하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의 높은 자존감은 지난날에 대한 회한도 없습니다. “살다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죠? 여기까지 걸어오는 우리의 건강부터 그렇고,



무슨 연유인지 영어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하다니!”

동아리 멤버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꼭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모인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한글을 모르시던 80대 할머니가 글을 깨우치고 시를 쓰셔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콧등을 찡하게 울립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것은 물론 한 개인의 행복을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꿈틀 거리게 하는 일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

언젠가는 우리들도 영어를 접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이런 기쁨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글을 뒤늦게 배우며, 배우지 못한 한을 풀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부족한 저도 누군가의 꼭꼭 매여 있는 매듭을 풀어드릴 수 있는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동아리 학습 초기 멤버는 아니지만 이 그룹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영어소설 속에서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리라는 계획도 했답니다.

이처럼 동아리 학습은 영어를 잘 해보고 싶다는 한 사람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 어쩜 기준 가치 기준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놓는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랑비에 옷 젓는다는 말처럼 읽고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 자신이 스멀스멀 젓어 들었는지, 저의 영어 독해력도 저의 노년의 삶도 알게 모르게 긍정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물결에서 도도한 물결로

처음에는 그저 영어 공부만을 목표로 하던 제가 이 학습 활동을 거치며 이렇게 변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들의 작은 학습 동아리는 결코 미미한 행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꿔 놓는 소리 없이 흐르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 모자람이 우리를 차라리 밀어 주고 있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나만의 길을 찾아



가도록. 네가 나를, 내가 너를 부추겨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이웃에게 언 땅을 녹이는 봄비가 되고 나아가 도도한 물결이 될 것이라는 저희들의 꿈이, 꿈에서 그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꿈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 동아리 모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수상

한 계단만 올라서면 . . .

박성희  얼쑤! 용산

응모작 요약

두 딸의 양육을 핑계 삼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낸 후 여러 곳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요가, 퀼트, 북아트, 탁구, 캘리그라피 등 정말 많은 강좌를 들었으나, 그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은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시오... 취미로만 배우다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학습동아리 중 하나인 '얼쑤!' 용산 소속 박성희 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전래놀이를 연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시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전래놀이를 알게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8월, 전라북도 익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저는 용산구 소식지를 통해 '전래놀이 지도사 자격증반'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빠르게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익산에서 전래놀이 자격증을 따려면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없어 다른 지역까지 가서 공부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이 강좌를 선택하는 데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 수업. 놀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신나게 놀면서 익히니 배우는 즐거움 또한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가 서먹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예쁜 언니들 덕분에 금방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40대가 되고 보니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더없이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래놀이 마지막 수업 날 학습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렇게 만난 좋은 이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동아리 결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습할 공간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월드컬쳐오픈 코리아라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안국점과 서소문점 두 곳을 왔다갔다하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2시간씩 열심히 동아리활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 회원들이 전래놀이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서 본 경험이 드문 주부들이 많았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두 명씩 조를 이루어 수업 준비를 해온 뒤 회원들을 상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대중 앞에 서는 두려움이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노력을 주무관님께서 아시곤 육아지원센터에서 용산구 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래놀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소개해주셨습니다. 동아리 평가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자 동아리 지원금과 함께 편하게 모여 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 제공되어 장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운 일은 ‘시민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으로 전래놀이 심화 과정을 개설해 주셔서 우리 회원들의 실력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됨과 동시에 2급 자격증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전래놀이 수업을 진행 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얼쑤!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는 매주 만나 우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예쁘게 봐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 서울보행거리 시민공모활동에 선발되어 DDP 와 세종대로에서 우리의 놀이를 알리는 기회를 세 번이나 가졌습니다. 또, 용산구 책 축제에서도 전래놀이 부스를 책임지고 운영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동아리가 좋은 평판을 가지자 저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주어져 용암 초등학교 수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청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7회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 행사에서 전래놀이를 진행하여 강사료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고 배우는 게 행복하여 시작한 전래놀이가 이제는 사회에서의 봉사 기회와 더불어 금전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니 우연히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입니다. 육아를 핑계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시간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이것저것을 배워 제가 가진 자격증과 수료증을 합하면 열 개가 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남편은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해보라는 조언을 했었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배우는 것은 나를 위한 취미활동에서 끝나지만, 한 계단만 올라가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드릴 수 있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1365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했었는데 41시간이라는 봉사시간을 볼 때마다 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내년까지 100시간을 저축하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12월에 새롭게 영입될 신입회원들과 힘을 합해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래놀이로 즐거움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장려상

비상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

송영미  종이비행기

응모작 요약

지난 여름날 소외된 아동지역센터와 돌봄교실, 장애인 생활시설에 우리 동아리는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공유하며 희망의 마을공동체를 일구어왔다. 앞으로 우리의 작은 봉사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종이비행기’ 동아리가 만든 형형색색의 희망의 비행기가 날다 어떤 곳에 불시착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또 다른 종이비행기가 비상하리라 소망한다.

무더웠던 여름 어느 날, 우리 종이접기 동아리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아동 지역 센터와 돌봄 교실, 장애인 생활 시설의 소외된 이들과 나누고자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들뜬 마음에 멋과 뿐을 내고서 찾아간 000 장애인 생활 시설. 우리가 들어서자 시설 안의 눈망울 망울이 커지고 그 시선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첫 만남이 활동으로 이어지는 건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설의 한 명 한 명은 모두 어른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세 살, 네 살이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또 신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 명 한 명은 혼잣말을 읊조리거나 갑자기 쓰~욱 다가 와 몸을 만지거나 하면서 낯선 방식으로 우리를 환영했다. 무조건 반사의 형태로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머리는 땀범벅으로 흐트러졌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맞닥뜨린 얼굴에서 소리 없는 웃음을 보았고, 그 웃음에 담긴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와~우!



우리의 눈이 티 없는 웃음을 보게 되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아들, 딸을 돌보던 그때의 엄마의 본능을 찾게 되었다. 뺨뺨하게 굳은 손가락과 어눌한 말은 그저 우리와 다를 뿐이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지고 또 펴 드리면서 동화책을 읽고 또 종이접기를 한 시간은 우리에게도 큰 감명으로 다가왔고, 그 지점에서 ‘봉사’와 ‘수혜’의 경계는 어느덧 쏘~악 사라졌다.

우리가 “산을 접어보자.”며, “위와 아래가 뾰족로 만나게 하세요.”라고 삼각 접기를 보이면, 우리

해맑은 얼굴은 “뽀뽀래~ 호호호 키득키득”, “아, 삼각 김밥이구나.” 하며 스스로 받아들인 바를 표현하며 서투른 손가락을 움겼다. 같이 세모를 접고 네모를 접으면서, 우리 역시 표현 하나하나를 수업의 방법으로서 배웠다. 손을 맞대고 함께 종이를 접으면서 우리는 봉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그렇게 만들어나갔다. 빠뚤빼뚤 종이가 나름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야속하게도 시간이 다 되어갔다. 우리는 헤어지는 때 부를 노래와 울동을 만들어 “큰 집에 사는 큰 사람 큰 소리로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하고 아쉬움을 달랬다. “언제 또 와요?”라는 말을 듣고, 아쉬움에 놓지 않으려 하는 손을 다시 한 번 맞잡으면서 봉사의 하루하루를 마쳤다.

8월은 가마솥 더위였다. 푹푹 찌는 하늘 아래 봉사자 한 명 한 명은 각자의 사정과 휴가를 내놓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동아리를 통한 종이접기 봉사의 관록이 풍부한 편이 아니어서 수업을 하고 있노라면 옷은 어느새 비를 맞은 듯 했다. 하지만 옷을 적신 땀방울 하나하나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준 이들의 사랑과 행복으로 솟아난 것이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봉사가 끝나고 아이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피드백을 할 때엔 저마다 재능을 나누니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다음 봉사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기약하고 피로를 잊었다.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우리의 나눔은 작았지만 우리가 받은 기쁨은 컸고, 그리하여 보람은 배가 되었다. 또 여럿이 서로 밀고 끌며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의 아름다움도 마음속에 아로새겨졌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으로써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여름을 거치며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대하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다.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양자 모두 배우고 또 성숙할 수 있었다. 그 성숙은 단지 면대면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의 희망공동체, 우리 사회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사회 속 우리의 존재와,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를 발견했다. 그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고, 가장 큰 성숙이었다.



한 분기의 활동으로 뿐만 아니라 감동과 큰 기쁨을 얻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좀 더 풍요롭게 채워 나가기 위해, 차후에 더욱 내실 있는 만남과 활동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해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갈고 닦을 필요도 느껴 본다. 지속적으로 이뤄질 우리 ‘종이비행기’의 봉사 여정이 어디로



어떻게 향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으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아리의 활동에서 얻은 배움을
간직한다면 그 항로는 순탄하리라 감히 상상해 본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는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두터운 토양 아래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데 우리의 작은 동아리 활동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야기 엄마의 소망

최인녀  서리풀 동화나라

응모작 요약

스토리텔러! 구연동화 공부를 통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또한 어린이와 만나는 봉사수업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수업에 참관하는 엄마들에게 육아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노력하는 이야기이다.

“짠~ 엄마 어때?”

“와~ 멋지다. 우리 엄마 최고! 이번엔 무슨 동화예요?”

딸은 나를 보고 한 없이 행복해 한다. 나는 딸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

나는 2년차 구연동화 스토리텔러이다. 이젠 어린이들 앞에서 구연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구연동화를 만나기 전, 나의 얼굴은 굳은 표정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사람들은 나를 보고 화났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내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왜냐하면 구연동화를 들으러 오는 어린이들과 만날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 것이다. 보석 같은 눈망울이 내 주위에 모여 귀를 쫑긋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 구연동화 봉사 수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나에게 예뻐졌다고 늘 칭찬한다. 볼 때마다 젊어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구연동화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구연동화 공부를 하면서 생긴 변화는 얼굴표정뿐 아니고,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첫째 딸을 기르는 과정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욕심을 냈었다. 그래서 딸이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것저것을 가르쳤다. 딸은 엄마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 그런데 딸은 나의 나쁜 것도 닮아 가는 것이었다. 그 후 동화구연을 만났고 공부를 하면서 둘째 딸에게는 책을 많이 읽어 주었다. 점점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이 커져갔다. 첫째 딸과 달리 엄마의 나쁜 점은 닮지 않았다. 둘째 딸의 생각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집안 분위기도 많이 평안해졌다.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서리풀 동화나라’는 구연동화를 좋아하는 주부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이다. 주부들이라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모여 배우고 익히면서 실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연말이면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동극도 준비한다. 동화를 고르고, 시나리오를 개작하고, 배역을 정하고, 의상을 만들고, 음악을 정하고, 무대를 꾸미면서 틈틈이 모여 연습을 하고, 당일이 되면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 한다.

2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동아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박00선생님의 외동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전보다 아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구연동화를 하기 전의 엄마는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 주는 엄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못 했는데 엄마가 공부를 하면서 언제나 옆에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엄마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아들로 변화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김00선생님은 배울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분이다. 김 선생님은 많은 것을 배우러 다녔지만 구연동화는 좀 다르다고 한다. 배우는 것들이 주로 단기적이라 끈기가 없었는데 2년이라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끈기가 생겼고, 배워서 익히는 것들을 봉사수업으로 활용하게 되어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젊은 이00선생님은 어린자녀가 셋이나 되어 동분서주 뛰어다닌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구연동화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동아리 공부에 열심이다. 그 결과 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곤 한다. 또 딸의 학급에서 구연동화 봉사수업도 하고 있다.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큰 언니인 박00선생님은 소녀 같은 마음을 잃지 않으시며 손자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신다.

우리 서리풀 동화나라 회원들은 엄마의 온기와 프로의 마음으로 봉사 수업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2년간 한 번도 휴강한 적이 없다.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아는지, 구연동화 수업에 참관하러 오는 어린이와 엄마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직 기관에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수업에 찾아온다. 어느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구연동화를 듣고 보내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온다. 엄마들은 아이와 같이 구연동화를 듣고 독후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공감하고 많은 내용들을 얻어간다. 우리 스토리텔러 선생님들은 모두 자녀를 둔 엄마들이다. 그래서 엄마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선배로 다가가 초보엄마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내 작은 소망은 엄마들이 힘든 육아에서 잠시 쉬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구연동화를 들으려 기관에서 단체로 올 때도 많다. 그러면 나는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책을 들고 구연동화를 한다. 책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어렸을 적에 책 읽는 습관을 잘 들이면 독서는 취미가 아닌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구연동화를 재미있게 하고, 그러면 호기심에 찬 아이들이 책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나의 바람이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책에서 남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신중함을 배워 남의 말에 쉽게 동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신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밝은 사회가 확실히 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책에서 지혜를 얻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다. 우리의 구연동화 동아리는 그런 어른들을 만들어낼 그릇을 빚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장려상

평생학습의 즐거움

강정옥  이웃나라 문화알기

응모작 요약

이웃 나라 문화알기(일본어교실)는 2012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동아리로, 2008년 학습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학습 장면들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행복했던 3박4일간의 여행이었건만 서울로 오는 비행기속 내 마음은 바짝바짝 탔다.

오후 9시에 김포공항에 내려 짐 찾고 헤어져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11시. 내일 행사 시간은 오전11시 30분.

-글로벌 이촌빌리지 센터장님과 통화, 회원들의 참석인원 확인, 초대한 행사 외국인 명단, 서투른 인사말 원고, 설명에 필요한 최소한 안내서, 이동 피켓 등- 머릿속이 비행기소음보다 더 시끄럽고 복잡했다.

2008년 10월 6일은 내게 정말 특별한 날이고 오늘까지 날 행복하게도 좌절하게도 만든 잊지 못 할 운명의 날이다. ‘한국인 대상 무료 일본어 강좌’ 안내 기사는 선착순이기에 망설임 없이 달려가 등록을 하였다. ‘휴우~’ 왕초보반 교재를 받고 보니 한없이 설레고도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이 나이에 내가?’ 하면서 걱정도 되고 ‘겨우 쉰아홉 살인데,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새 학기 교과서를 품에 안고 새 학년을 그려보던 초등학생의 설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흥분 되었다. 그날로 식탁을 책상삼아 목차를 읽고 히라가나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글자가 우습기도 하고 마음대로 예쁘게 따라 써지지도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몇장을 사본하고 잤다. 평소 내 생활을 응원하는 가족들의 장난과 격려로 내 두려움을 조금은 덜며 잤다. 좋은 선생님과 열심인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시간에 쫓겨 포기하거나 흥미를 잃어 점점 중도탈락자는 늘어갔고 6개월간의 무료 강의도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안타깝게 폐강 되었다. 이제

겨우 읽고 새로운 언어와 이웃문화의 단맛을 알기 시작한 몇 명은 스스로 배움의 장소를 찾고, 선생님을 모시고, 교통비 정도의 사례금을 드리며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정기수업을 받았다. 사는 데 급급해 여가 선용이나 자신의 계발에 소홀했던 우리 몇 명은 끈질기게 배움에 매달렸다. 또 틈틈이 수다로 고단한 노후의 삶도 나누며 배움의 친구로, 생활의 동반자로 굳건해졌다. 의욕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 많이 좌절하면 서로 격려하며 10년을 이어 왔으나 결국 장소를 얻지 못해 요즘은 한 달씩 떠돌며 주 1회 두 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 언어실력이 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했던 걱정이 요즘은 늘 장소 걱정에 밀리고 있다.

내년이면 70대가 넷, 60대 둘, 50대 하나, 그래도 우리는 올해 이룬 것이 정말 많아 우리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몇 권의 교재를 끝냈어도 무거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몇 사람이 모여야 겨우 한 문장을 완성해내고 배꼽을 쥐지만, 일본대사관의 무료영화도 보려가고 개봉극장의 일본영화도 자주 본다. 몇 단어만 귀에 들려도 신나하고 영화 대화를 다 들은 체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2년 동안 부은 적금을 타서 교토, 오사카로 2박3일 동안 언어연수를 갔던 2017년 4월의 여행은, 학교 수학여행과 비교도 안될 만큼 들떠있었다. 운 좋게도 우리 팀만이 한 차로 다녀서 마음 놓고 되도 않는 일본어를 해놓고는 웃음으로 마무리! 안내자도 기막혀 했다. 귀국 시 일본어 자신감은 면세점에서 마구 사온 것일까?

5월 국립박물관 정원 봄나들이 안내, 6월 봄철 나물 만들기 등 일정을 짜고 준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5월 행사를 앞두고서 내가 여행 중에 돌발 사고가 나 하루 늦게 오게 된 거다. 그러나 비행기 속에서의 내 초조함은 기우였다. 늦는다는 내 문자에 모두 비상을 걸어 회원 각자 역할을 배분하여 정시에 다 모였다. 12명의 일본인들이 박물관 정원나들이에 참석했고 궁금해 하는 외국인들의 질문엔 회원들이 땀 흘리며 추가설명까지 잘 해냈다. 새벽에 급조한 내 피켓도 그럴싸하게 눈에 잘 띄었다. 어느 회원이 찬조한 아이스크림 선물은 예정에 없던 간식 담소로 이어졌고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정말 회원들의 열의와 시간이 쌓아준 정과 신뢰가 허둥대던 내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6월이지만 꽤나 더워 몇 사람이나 올까하는 걱정과 다르게 봄철나물 만들기 행사 신청자가 많아



진행상 12명으로 제한 재료비 5만원을 센터와 협의하여 회비를 받았다. 봄나물 종류를 인터넷에서 찾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메뉴로 정했다. 불을 쓸 수없는 장소의 특성상 살짝 데칠 것은 미리 준비를 하였다. 여섯 가지 나물 만들기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각자 맛 본 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받았다. 공식 시연행사 후 만든 나물과 미리 준비한 햅반을 데워 큰 양푼에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각자의 그릇에 담아 정말로 즐겁고 맛있게 먹었다. 더 먹는 사람도 많아 오히려 고마웠고 시원하게 준비한 수박 한 통을 쪼개 나눠먹으며 한국의 풍성한 인심도 나눠주었다. 물론 5천원 회비는 부족 우리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했다. 후식을 먹으며 나눈 간단한 담소에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갖고 싶다는 요청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가 좋아서 오늘 또 참석했다는 여러분이 계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젠 평생을 배우고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읽고 본다. 그래도 나에게 맞는 배움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사회적 도움도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딸이 늦게 손녀를 낳아 난 더 바빠질 것이다. 10년이 되도록 회장 없이 총무를 하고 있어 조금 더 바쁘겠지만 조금씩만 내 계발의 속도를 늦추고, 조금씩은 사회에 기여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겠다. 요즘은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지 않고 행복을 많이 받아온다고 한다. 올해는 행사를 통해서 배움을 써보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도 한 해였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가 없는 떠돌이 배움이 자칫 수업마저 못하게 되어 이것으로 도중 하차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까 걱정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배움 장소도 구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다.



장려상

나이를 잊은 그대에게

이상화  청춘파워댄스

응모작 요약

주로 7080세대로 구성되어 8년 연속 학습동아리로 활동한 팀으로 노인의 삶을 벗고 미래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학습동아리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학습동아리 강사로서 노년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평의 실버청춘들,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건강과 행복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우리 마을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생겨난 이래 최초의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이름은 ‘시니어 라인댄스’. 처음 만남의 어색함과 멋쩍음은 오간 데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리와 뜰기로 뜰뜰 뭉쳐 신나고 즐거운 댄스동아리로 변신해갔다. 그리고 춤추는 횟수를 거듭 할수록 댄스 무아지경에 이르게 됐다. 강사의 제안으로 학습한 댄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송년회를 준비하였는데 연습하면서 우리들의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었다. 외부 활동으로 제일 처음 무대에 올랐던 것은 대한 적십자사의 노인체조대회였고, 그 후로 은평구 ‘누리 축제’, 서울시 동아리축제 ‘좋아서’ 등에 참여해 공연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한 즐거움과 뿌듯함이 밀려 왔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자랐고 시집가서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으며 시부모 공경하면서 집안일 하느라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식이 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차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두려웠다. 자신감의 결여로 나의 정체성을 잃어 버렸던 것이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듯 했다. 나또한 용기 내지 못하고, 또 누가 알까 두렵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라인댄스와 그로인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올드 팝에 맞춰 춤을 춰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춤이 안 되면 댄스복장으로, 복장이 부족하면 모자를 쓰거나, 모자로 부족하면 화장을 하고……. 특히 2016년에는 참 많은 무대에 섰다. 1월 28일 인덕원에서 진행한 노인요양원 봉사 공연을 시작으로 국회에서의 나라사랑댄스 공연, 2016년 ‘좋아서’



공연, 시민대학 춤&인 연극공연 등 하나하나가 다 뜻깊은 무대였다. 현재 우리 시니어 라인댄스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강사의 조언이 조금 반영 될 뿐 우리들 스스로 스태프가 되고 단원이 되어 작은 공연부터 동네의 큰 행사까지 어떤 무대라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 진화했고 점차 무대 맛을 알아가면서 봉사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사는 은평구는 서울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소박하고 북한산에 둘러싸여 그림 같은 배경을 자랑한다. 노인 요양소인 인덕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양로원과 요양원 등을 찾아 봉사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지병이 있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신나게 놀아드리면 그들 모두 행복해 하셨다. 그 모습에서 나의 어느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어느새 나도 라인댄스와 함께 그들의 자리에 앉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서글펐지만, 다행히 라인댄스 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아직은 건강하다고 자부 할 수 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시니어 라인댄스가 발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학습관과 은평구청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들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였고 또한 우리는 기꺼이 공연의 즐거움을 느끼며 오늘까지도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다. 노년의 역할 상실로 많이 우울해하고 질병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운이 좋은 것인지 하늘이 우릴 도운 것인지, 신체가 허락하는 동안 열심히 댄스로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고 공연하면서 우리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서 못한 아이돌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힘이 닿는 한 계속 하고 싶다. 남들은 할머니가 체통도 없다고 하나 ‘난? 역시 나야!’ 내가 하는 멋진 꿈을 꾸면서 지역의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자랑스럽다 생각한다.

2017년 1인1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운영사례집

- 발행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SMILE)
- 발행일 2017년 12월
-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 발간번호 SMLE-2017-B17
- 발간부서 사업기획팀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서울대종동장회관 14층
- 인쇄처 디메이크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